

강군 건설 든든한 지원군…군수품 국산화 문 활짝

육군군수사 ‘국산화 개발 전시회’
수리부품 등 공개 민간 참여 촉진

육군군수사령부(군수사)는 21~23일 부대 국산화 개발 전시관에서 ‘2025 하반기 국산화 개발 전시회’를 개최했다.

군수사는 수입 대체 효과가 크고 기술과 급력이 높은 육군 수리부품과 물자 등을 공개함으로써 국내업체의 국산화 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행사를 주기적으로 열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윤활유, 낙하산, 폭발물처리슈트 등 유류 및 물자 분야까지 국산화 개발 범위를 확대하며 민·군 협력 영역을 넓혔다.

행사에서 군수사는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업들이 사업 타당성과 수익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부품·유류·물자 등 430여 개 품목과 정비능력 개발이 필요한 6개 품목의 형상 정보를 공개했다.

군수사는 행사 종료 후 국산화 개발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성·제조능력·재무구조·신뢰성 등을 종합 검토해 개발 적격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업체는 해당 부품을 최대 5회, 15년간 우리 군에 납품할 수 있는 수의계약 기회와 함께 시제품 제작비·정비능력 개발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김광식(군무이사관) 군수기반품질관리처장은 “전시회를 통해 부품·유류·물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산화 가능성을 가진 실력 있는 업체들의 적극적인 개발 참여를 기



육군군수사령부가 21~23일 개최한 2025 하반기 국산화 개발 전시회에서 참가자들이 전시품을 관람하고 있다. 부대 제공

대한다”며 “앞으로도 민·군 협력을 강화해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야전부대 전

투장비의 가동률을 높여 강한 육군 건설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원 기자

“우리는 한 팀” 현역·예비역 전시 임무수행 척척

육군5포병여단, 예비군 동원훈련
행동화 숙달·팀 임무수행능력 강화

육군5포병여단 비룡대대는 22일부터 24일까지 군단 동시통합훈련과 연계한 예비군 동원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에는 장병 190여 명과 동원예비군 60여 명이 참가했다. 훈련은 전시 동원 완편하 부대 증·창설 계획 검증과 행동화 숙달, 팀 단위 임무수행능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훈련 첫날에는 △인도인접, 부대 증·창설식 △개인화기 사격 △핵·화생방 방호능력 숙달 △안보교육 등 전시 필수 교육과목이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주야간 작계시행훈련과 직책수행능력훈련이 이어졌다. 마지막 날에는 재출동준비 및 미흡점 보완 훈련을 통해 완전작전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작계시행훈련에서는 전시상황을 가정한 K9 자주포 주야간 사격임무수행 절차와 K10 탄약운반장갑차를 활용한 탄약재보급 훈련이 실시됐다.

또한 소부대 단위의 전기전술 숙달과 부대 방호훈련, 드론·화생방·사이버·심리전 등 적 4대 위협 대응절차를 병행하며 실전적 대응능력을 검증했다. 전포 특기 동원예비군 대상으로는 자주포 1인 방렬 교육이



육군5포병여단이 23일 군단 동시통합훈련과 연계해 진행한 예비군 동원훈련에서 현역과 예비군이 탄약 재보급 훈련을 하고 있다. 부대 제공

진행됐고, 사격지휘·통신·측지·수송 등 주특기 분야 훈련도 병행됐다.

현역과 예비역 장병들은 팀 단위로 직책수행 과제를 집중 숙달하며 실질적인 전시 임무수행절차를 체득하는 중이다.

부대는 훈련 준비에도 만전을 기했다. 사전 간부교육을 통해 증·창설 절차를 숙달시

키고 교관 임무수행능력을 강화했으며, 훈련 준비사열·위협성 평가체계 적용·안전활동 강화 등을 통해 완전한 훈련 여건을 조성했다. 부대는 훈련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을 작전계획에 반영·발전시키며, 지속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완전한 화력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김창선(중령) 비룡대대장은 “이번 훈련은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현역과 예비역이 하나 된 능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강한 예비전력을 육성하고, 유사시 적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원 기자

육군, 막힘없는 자원동원·인도 절차 숙달 훈련

50보병사단, 지자체 연계 실효성 검증

육군50보병사단이 총무훈련 기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실질적 자원동원훈련으로 부대 임무수행능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20일 시작해 24일까지 계속되는 훈련은 전시 국가자원의 신속한 동원 및 인도·인수 절차를 숙달하고, 전시 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뒀다.

부대는 훈련에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

시종합상황실 및 군·경 합동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 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했다. 이어 실제 인원과 장비를 투입해 자원동원훈련을 했다.

특히 자원동원훈련에서는 대구·경북지방방위청과 협조해 기술인력 및 전시근로자 30여 명과 차량·건설기계 등 장비 50여 대를 실제로 소집해 훈련을 전개했다. 참가자들은 동원 소집부터 장비 인수, 통신체계 점검까지 전 절차를 숙달하며 실전적 상황

조치 능력을 강화했다. 또한 총무계획과 동원운영계획의 연계성을 점검하고, 부대 증·창설 업무 절차와 동원장비의 가동상태를 확인했다. 통신·유지보수 업체의 임무수행 능력도 함께 검증하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통합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훈련 마지막 날에는 훈련 관계관들이 모여 사후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영훈(대위) 군수동원장교는 “유사시 신속한 자원 동원과 효율적인 인수 절차 수행 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보완과 훈련을 통해 빈틈없는 동원 대비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원 기자



육군50보병사단이 22일 실시한 자원동원훈련에서 장병들이 차량을 소집하는 절차를 숙달하고 있다. 부대 제공